

임실군, 군정 완성도 높인다 행정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열고 군정 추진전략 구체화

임실군(군수 심민)은 지난 21일부터 내년도 군정 설계를 위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 한 해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군정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관광·정주·복지·농업·문화체육 등 전 분야의 실행과제를 다듬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육정호 권역 대형 프로젝트 가속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천만관광 임실시대' 달성을 위해 임실군은 육정호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거점을 고도화 하고 있다.

군은 불안계 트레킹 코스(약 89km), 육정호 친환경 목조전망대, 스카이워크 등 걷기·조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200실 규모 관광호텔과 약 3.5km 구간의 케이블카(봉어섬~나래산 연결)를 민간투자와 연계해 추진 중이다.

한편 역대 최대 관광객 61만명이 다녀간 대한민국 대표축제, '임실N치즈 축제'는 올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10개 테마·70개 프로그램으로 규모를 확대해 가족친화형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향후 아이랜드 조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야간체류 콘텐츠를 강화하며 '머무는 관광지'로 전환을 이어갈 방침이다.

△반려산업 전담조직 신설... '세계명경 테마랜드' 본격화

임실군은 지난 7월 반려산업업을 신설하고, 반려산업을 관광·복지·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축제 '임실N펫스타' 등 이벤트형 수요를 확대해 반려산업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임실군(군수 심민)은 지난 21일부터 내년도 군정 설계를 위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 한 해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군정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한다.

군은 교육·체육·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 모델을 통해 국내 대표 반려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전북형 반향주택' 320호 공급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군은 전북형 반향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임실을 12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앞서 추진 중인 관촌면 120호·오수면 80호와 더해 총 32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정주활력센터는 20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중이며, 공모 진행중인 이도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구도심 재생과 주거복지 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지원사업 확대... 농촌인력난 해소 기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수용인원 90명 규모의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이다. 최근에는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도 도입하는 등 송출국 다변화에 나서, 2026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50명 도입 규모로 확대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복지 등 전 분야 성과 창출과 민선8기 결실 완성

군은 임실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조성,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보호와 노인일자리 확대, 통합돌봄지원사업 도입을 통해 노인·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중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여성 취·창업 지원등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2026년은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본격 진입에 안착하는 시기로, 각 부서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라며 "주요 핵심사업을 빈틈없이 기획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활력 넘치는 임실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11월 7일까지 시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202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제보 접수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보 대상은 △남원시정 전반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건의 및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제보 방법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 접수 등도 가능하다.

김영태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통해 남원시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논의 날' 기념식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순창군이 눈 건강 증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열린 '제55회 논의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논의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로,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에 기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순창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및 어르신에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질환 예방에 앞장서 왔다. 특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



에게는 눈 수술비를 지원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또한 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노년기 질병 예방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플레이스비' 활용 도로명주소 교육 운영

남원시는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체험 프로그램, '플레이스비'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주생초, 운봉초, 오동초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의 체계와 읽고 쓰는 방법 그리고 도로명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시청각 자료와 퀴즈 등을 활용

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행안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운영 중인 '플레이스비(placebe)'라는 디지털 가상공간 속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직접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쉽고 재미있게 도로명주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맛집 선정 신청·접수

임실군이 2025년 임실 맛집 선정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맛집은 2년마다 지정·운영하며, 음식의 맛, 서비스 수준, 위생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상위 2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및 맛집 선정 위원회 현장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임실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맛집 현판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며 군 홈페이지 게시, 책자 제작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 내역, 신청 자격, 신청 서류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비닐하우스 창고 화재 22분 만에 완진

순창소방서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3분경 순창군 복흥면 동신리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22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1동(400㎡)과 내부 농업용 기자재 등이 소실돼 약 354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소방서의 빠른 조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서는 화재 신고 접수 직후 인력 54명과 장비 18대를 현장에 투입해 화재 확산 방지와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 조사 결과 비닐하우스 내부 냉장고 앞 전원용 멀티탭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신규 귀농귀촌인 교류 활성화 지원 나서

임실군이 신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류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전일 5년 이하의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농업 기술 습득, 관광 자원 체험, 지역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임실 고추가공센터·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임실군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농업기관을 견학하여 지역 특산물 가공 및 유통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수 반려동물 지원센터·오수 파크골프장·성수산 왕의 숲 자연휴양림·임실치즈마을 등 주요 대표 문화 관광지 탐방을 통해 지역 이해를 돕고 나아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동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심 민 군수는 "참가자들이 임실군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심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